



KOREA 할라백!코리아
HAS THE POWER TO END STREET HARASSMENT
성희롱을 당하면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와 함께 나누세요!

즉시 보도

2013년 12월 3일

연락처: 밀쉘비 (Chelle B. Mille)

korea@ihollaback.org

길거리과 지하철 성추행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설 단체

할라백!코리아 팀의 새로운 웹사이트가 12월 3일에 개설될 예정임을 기쁜 마음으로 알립니다. 할라백!은 공공장소에서의 '길거리 성추행, 괴롭힘, 성희롱 (street harassment)'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항하는 데 전념하는 모임들의 국제적 네트워크입니다.

왜 한국일까요?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8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2.5%가 '출퇴근길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79%는 여성이었습니다. 출퇴근길에 성희롱을 당한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지하철'이 71.6%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사이'가 60%를 차지했습니다. 본 조사에서 성적 기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 중 대부분은 서울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한국 전역에 걸쳐 보고된 성 범죄의 수는 2007년 13,634 건에서 2010년 19,939 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할라백!은 현재 24개 국가, 71개 도시에 14개 언어를 기반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할라백!코리아 팀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여성과 남성으로 이루어진 다국적 모임입니다. 서울은 증가하는 관광객, 국제적 사업, 그리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행사들이 열리며, 활기차며 다양한 인구를 보유한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도시 곳곳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높은 수준의 길거리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다른 지역에도 해당됩니다. 할라백!코리아 팀의 한국 지역대표 '밀쉘비 (Chelle B. Mille)'은 "저희가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성추행하고 괴롭힘은 사람들에게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우리 모두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별, 성적 지향, 국적 등에 상관 없이 자신들의



KOREA 할라백!코리아
HAS THE POWER TO END STREET HARASSMENT
성희롱을 당하면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와 함께 나누세요!

이야기를 공유할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뒤에는 저희가 있습니다. 할라백!이 있습니다. 할라백!코리아 팀이 제공하는 한국 지도에 표시된 각각의 분홍색 점들은 괴롭힘이 발생한 지역을 의미하는 한편, 초록색 점들은 괴롭힘의 목격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개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한국 내 길거리나 지하철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사회에 인식을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할라백!코리아 팀은 지역 자원활동을 통해 길거리 괴롭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한다.

할라백!코리아는 12 월 6 일에 제주시 및 광주시 모임 창설을, 12 월 14 일에 서울시 모임 창설을 기념하는 행사를 각각 개최합니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korea.ihollaback.or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활동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korea@ihollaback.org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할라백에 대하여

할라백(ihollaback.org)은 길거리 성추행을 없애기 위한 비영리단체이자 운동이며 세계 전역의 지역 활동가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길거리 괴롭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공적 담화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그리고 공공장소에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 길거리 성추행(street harassment)이란 성별 또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무례하거나 위협적이거나 희롱적인 언어적·물리적 행위를 의미합니다.